

## 초등학생들의 경제개념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환율' 개념을 중심으로

이 준 혁(서울교육대학교 강사)\*

---

### 《 요 약 》

---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종래의 경제개념 발달 연구들이 몇 가지 한정된 미시적 경제개념들만을 다루어 왔다는 문제의식 하에, 그간의 연구에서 다루어 오지 않았던 거시적 경제개념들 가운데 하나인 '환율' 개념의 발달 양상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간의 연구들이 개념 발달 '단계'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아동들이 경제세계에 대해 어떤 그릇된 상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오지 못해 왔다는 비판적 인식 하에 '환율' 개념과 관련한 직관적 상념을 탐색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념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B초등학교 아동 150명(4~6학년 아동 각 50명)에게 환율 개념을 표상하고 있는 달러 가격과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직관적 상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아동들이 국가, 은행, 국제기구 등과 같은 기관들이 경제 사정이나 물가 등을 고려하여 달러의 가격을 직접 결정한다는 직관적 상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그릇된 상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며, 적지 않은 수의 고학년 아동들이 보다 현실적인 '시장 중심적 사고', 즉 달러의 가격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달러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편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아동들의 경제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같은 정보들을 꾸준히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경제교육, 경제개념, 경제개념 발달, 경제세계, 직관적 상념, 환율

---

---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yjh9007@hanmail.net

## I . 문제의 제기

화폐 개념의 발달 양상을 조사한 Strauss(1952)의 연구는 경제개념 발달 연구의 효시(嚆矢)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연구를 계기로 아동들이 그들을 둘러싼 경제세계(economic world)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그가 사용한 면접 중심의 발견적 탐색 방법은 여러 후속 연구들의 방법론적 토대가 되어 왔다(김경모, 1993).

확실히, Strauss의 연구를 위시한 이 분야의 여러 연구들은 경제세계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와 추론 방식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사고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들은 그 접근방법으로 말미암아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한계를 또한 노정(露呈)시켜왔다.

우선, 종래의 연구들은 화폐(Berti & Bombi, 1979, 1981), 이윤(Jahoda, 1979, 1984; Furth, 1980; Berti & Bombi, 1988; Jahoda & Woerdenbagch, 1982), 부와 빈곤(Leahy, 1981; Winocur & Siegal, 1982), 소유(Berti, Bombi & Lis, 1982; Cram & Ng, 1989)와 같은 몇 가지 한정된 미시적 경제개념들만을 다루어 왔다(Schug & Walstald, 1991; Furnham, 1994). 이러한 ‘미시 개념 중심의 접근방법’은 상당부분 환율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적 경제개념들이 아동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잠정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Furnham, 1994, pp. 22-23).

하지만 어떤 경제개념의 어려움의 정도는 아동들이 속한 경제사회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념 발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30~40여년 전과 현재의 경제사회의 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바,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제개념 발달 연구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거시적인 경제개념들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아동들의 경제 사회화(economic socialization)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Schug & Walstald, 1991).

종래의 연구들은 또한, 피아제의 이론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연령층에 속한 아동들이 가지는 개념상의 차이를 발견하는데 주력하면서, 연령에 따른 개념적 변화 현상을 ‘단계(stag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기술하고자 하였다(Furnham, 1994; 이준혁, 2004).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은 연령에 따른 특징적인 사고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서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경험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빠짐없이 거치게 되는 단 하나의 발달 경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현실의 복잡다기한 개념 발달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이해하게끔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이준혁, 2004).

특히 종래의 연구들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경제개념 발달 연구의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 Schug & Walstald(1993, p. 4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교육 분야에서 개념 발달 연구의 교육적 의의는 이 분야의 교사나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아동들이 가지는 사고의 내용에 대한 정보, 즉 아동들이 갖기 쉬운 그릇된 경제적 상념이나 신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제적 사고 발달 '단계'의 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고의 '형식'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간의 연구들은 어떤 경제개념이나 경제현상에 대해 아동들이 갖는 그릇된 신념이나 상념을 탐색하기 보다는 피아제의 사고 발달 단계에 기초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개략적인 '추론 양식'이나 '사고 양식'을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준혁, 2004). 확실히, 이러한 방법에 기초한 종래의 연구들은 특정 연령대 아동들의 전반적인 사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아제 이론이 거의 상식으로 통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이들 연구들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보다 원숙하게 사고하고 더 정교하게 추론하게 된다는 '발달적 속담(developmental proverb)'을 입증하는 일,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해 왔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교육 교사나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는 이러한 발달론적 속담이 아니라 아동들이 갖는 경제개념이나 경제적 현상에 대해 아동들이 어떤 그릇된 상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경제개념 발달 연구에서는 사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소위 말하는 아동들의 'Folk Economics'나 'Naive Economics'¹), 다시 말해 경제세계에 대한 직관적 상념(institutive notions)을 탐색하는데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경제개념의 발달 양상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경제세계를 이해해 나가는데 필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들의 경제개념발달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왔던 거시적 경제개념인 '환율'

1) 과학적인 설명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어떤 대상(對象)에 대한 직관적 상념은, 그동안 오개념(misconception), 선개념(preconception), Naive Theory, 상식이론(common sense theory)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왔다. 근래 들어 "Folk Physics"나 "Naive Biology"처럼, 어떤 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직관적 상념을 다른 영역에서 가지는 직관적 상념들과 구별하기 위해 'Folk'나 'Naive'라는 단어를 학문의 명칭 앞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는 'Folk Economics(Rubin, 2003)'나 'Naive Economics(Bergström, 1989)'라는 용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즉, 경제개념이나 경제현상에 대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이해', '비과학적인 인식', '잘못된 신념' 등과 같은 경제세계에 대한 직관적 상념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소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어들 대신에 '직관적 상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개념의 발달 양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sup>2)</sup> 특히 본고(本考)에서는 종래의 연구들이 그 접근 방법으로 말미암아 경제개념 발달 연구의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해 왔다는 문제 의식 하에, 아동들의 사고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환율’ 개념과 관련한 직관적 상념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개념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1. 연구 방법의 개관

아동들이 ‘환율’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하였다.

#### 가. 자료 수집의 방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경제개념 발달 연구들은 서로 다른 연령층에 있는 소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내용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분석·유형화하는 이른바 ‘면접 중심의 내용분석 방법’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해 왔다(김경모, 1993, pp. 9-11).

확실히 이 방법은 소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독해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문지나 질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보다 면접의 방법이 아동들의 생각을 자세하게 알아보는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이준혁,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들이 채택해 온 면접 중심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 나. 면접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K구에 소재한 B초등학교 4~6학년 아동 150명(학년별 각 50명)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피면접자를 중학년 이상의 아동들로 한정된 이유는,

i) 경제교육 관련 내용 요소들이 이 무렵부터 학교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

---

2) 어떤 다른 거시 개념보다 ‘환율’ 개념은 현행 사회과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수출, 수입, 무역, 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율 개념의 발달 양상에 대한 조사가 이들 개념에 대한 아동들의 직관적인 상념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 고려에서 여러 거시적 개념들 가운데 특히 ‘환율’ 개념을 본 연구의 탐구 주제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고, ii) 다른 한편으로 저학년 아동들을 면접 대상으로 삼았던 예비조사(Pilot Study) 결과, 불충분한 경제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1~3학년 아동들을 면접 대상을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종래의 연구들처럼 자연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개념 발달 양상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면접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년 별로 인원수 이외에 어떤 다른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즉,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로 두 학급을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학년 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면접 대상자를 또 다시 무작위로 선발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 대상 아동들의 구성 현황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면접 대상 아동들의 구성 현황

학년<명> \ 성별	남학생	여학생
4학년<50명>	26명(52.0%)	24명(48.0%)
5학년<50명>	24명(48.0%)	26명(52.0%)
6학년<50명>	27명(54.0%)	23명(46.0%)
전체<150명>	77명(51.3%)	73명(48.7%)

( )는 각 행의 전체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다. 면접의 내용과 절차

어떤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동들은 그와 관련된 상념을 자발적으로 형성해 나간다(Armento & Flores, 1991). 이러한 상념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접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표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들에게 매우 생소하다 할 수 있는 ‘환율’에 대한 이들의 상념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에게 1달러를 제시하면서,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아동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율 개념 관련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 ①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②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③ (만약 바꿀 수 있다면) 1달러는 우리 돈 얼마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④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다고 생각하는가?

- ⑤ 달러의 가격은 변한다고 생각하는가? 변한다면 얼마나 자주 변하고, 어떤 경우에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생각하는가?

면접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면접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접의 예】

I: (1달러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것이 무엇인 줄 아니?

6G: 1달러잖아요.

I: 만약 1달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6G: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어서 필요한 것을 살거예요.

I: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니?

6G: 당연히 바꿀 수 있지요.

I: 어떻게?

6G: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되요.

I: 1달러는 우리 돈 얼마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6G: 글썄요. 잘은 모르겠지만 12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I: 달러의 가격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6G: 변하지요.

I: 얼마나 자주 변한다고 생각하니?

6G: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변하는 것 같은데.

I: 매일매일 변하는 것은 아니고?

6G: 너무 자주 변하면 혼란스럽잖아요.

I: 그러면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다고 생각하니?

6G: 글썄요. 정부에서 정해주지 않을까요?

I: 아까, 은행에서 달러를 사고판다고 했잖아. 그런데 달러의 가격은 나라에서 정해주니?

6G: 제 생각에는 은행이 달러를 얼마에 사고팔지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 같은데요.

I: 그러면, 정부는 어떤 경우에 달러의 가격을 올리고 어떤 경우에 내리니?

6G: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 가격을 올리고요,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 가격을 내려요.

I: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6G: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가격을 낮추어주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I: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는 왜 달러의 가격을 올릴까?

6G: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가격을 올려야 하겠지요.

I: 경제가 좋아져도 계속 달러의 가격을 낮추어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6G: 그렇긴 하지만 달러 가격을 계속 낮추어 팔도록 하면 은행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당연히 달러의 가격을 올려야지요.<sup>3)</sup>

3) 이 사례에서 ‘I’는 면접자를, ‘6G’는 6학년 아동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른 면접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면접자와 피면접자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면접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 5월 10일 부터 2010년 7월 16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한 아동을 면접하는데 평균적으로 20~25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아동들의 사정에 따라 면접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대체로 학년 순서에 따라 방과 후에 실시 되었으며, 아동들의 면접 내용은 녹음을 통해 기록하고자 하였다.

## 라. 면접 자료의 분석 방향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리·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환율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직관적인 상념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 과정에서 제시된 각각의 질문 항목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그 유사성에 기초하여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면접 자료는 이렇게 범주화된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코딩(coding)하였고, 이 작업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삼각 검증(Triangulation) 작업은 면접 대상 아동들이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즉, 분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이들 교사들에 의해 검토되었고, 그 오류가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환율 개념의 전반적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렇게 분류된 면접 자료들을 SPSS/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들이 어떤 유형의 직관적 상념을 주로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러한 상념들이 어떤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지와 같은 전반적인 개념적 변화(conceptual changes)의 양상과 추세를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제한점

전술한 바와 같이, 면접 중심의 연구 방법을 채택한 본 연구는 종래의 경제개념 발달 연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아동을 면접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겠다. 또한 면접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연령 변화에 따른 발달 추세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둬으로써 학년 이외에 환경이나 경험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개념 발달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의 주된 초점을 환율 개념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갓기 쉬운' 직관적 상념들에 대한 정보들을 탐색하는데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는 그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 Ⅲ. 연구 결과의 논의

면접에서 제시된 질문의 주요 내용 별로 ‘환율’ 개념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달러 가치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달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두 가지 질문 즉, 달러와 우리 돈과의 교환 가능성 및 교환 방법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달러와 우리 돈은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환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전체 면접 대상 아동들 가운데 4명의 4학년 아동들만이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표 2〉 달러와 우리나라 화폐의 교환 가능성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현황

인식 유형 학년<명>	교환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없다
4학년<50명>	46명(92.0%)	4명(8.0%)
5학년<50명>	50명(100%)	0명(0%)
6학년<50명>	50명(100%)	0명(0%)
전체<150명>	146명(97.3%)	4명(2.7%)

( )는 각 행의 전체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특히, 이들 아동들은 아래 면접 사례와 같이 가게나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달러를 무용지물(無用之物)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46명의 모든 아동들은 은행을 통해 달러와 우리 화폐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 【사례 #2: 달러와 우리 화폐와의 교환 가능성에 대한 그릇된 상념】

I: (1달러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 줄 아니?

4G: 달러요. 미국 돈 이잖아요.

I: 만약 누가 달러를 너에게 많이 준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니?

4G: 글썄요. 달러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원어민 선생님한테 드릴 거예요.

I: 왜?



4G: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가게나 문방구 같은데서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I: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

4G: 그건 안 될 것 같은데..달러는 미국에서 쓰이는 돈이라 우리 돈으로 바꿔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화폐의 교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달러 가격을 추정해 보도록 한 결과, <표 3>과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달러의 가치를 현실에 가깝게 낮추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학년의 경우 1달러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추정한 아동들의 비율(34.8%)이 가장 높았고, 10,000원으로 추정한 아동들의 비율(30.4%)이 그 다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달러의 가격을 무려 100,000원으로 추정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는 1,200원이라고 추정한 아동들의 비율이 각각 48%와 44%로 가장 높았고, 무엇보다 6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달러 가격의 추정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00원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한 2명의 아동들을 제외하고는 1,000~1,800원 범위 내에서 1달러의 가격을 추정한 반면 다른 학년 특히 4학년 아동들의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3> 달러 가치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현황

달러 가격의 추정치 \ 학년<명>	4학년<46명>	5학년<50명>	6학년<50명>	전체<146명>
950원	-	2명(4.0%)	-	2명(1.4%)
1,000원	16명(34.8%)	9명(18.0%)	5명(10.0%)	30명(20.5%)
1,100원	-	-	2명(4.0%)	2명(1.4%)
1,200원	2명(4.3%)	24명(48%)	22명(44.0%)	48명(32.9%)
1,250원	-	-	3명(6.0%)	3명(2.1%)
1,300원	-	3명(6.0%)	7명(14.0%)	10명(6.8%)
1,350원	-	-	1명(2.0%)	1명(0.7%)
1,500원	2명(4.3%)	-	4명(8.0%)	6명(0.7%)
1,540원	-	-	1명(2.0%)	1명(0.7%)
1,600원	-	-	1명(2.0%)	1명(0.7%)
1,650원	-	2명(4.0%)	1명(2.0%)	3명(2.1%)
1,800원	-	-	1명(2.0%)	1명(0.7%)
1,950원	-	2명(4.0%)	-	2명(1.4%)

〈표 3〉의 계속

2,000원	4명(8.7%)	-	-	4명(2.7%)
2,200원	-	2명(4.0%)	-	2명(1.4%)
2,500원	2명(4.3%)	-	-	2명(1.4%)
3,750원	2명(4.3%)	-	-	2명(1.4%)
5,000원	2명(4.3%)	2명(4.0%)	-	4명(2.7%)
10,000원	14명(30.4%)	4명(8.0%)	2명(4.0%)	20명(13.7%)
100,000원	2명(4.3%)	-	-	2명(1.4%)
합계	46명(100%)	50명(100%)	50명(100%)	146명(100%)

( )는 각 열의 전체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2. 달러 가격 변동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환율 변동과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달러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4명의 4학년 아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에게 달러 가격의 변동 여부에 관한 물음을 제시한 결과, 24명(16.4%)의 아동들이 달러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반면, 나머지 122명(83.6%)은 달러의 가격이 변한다고 인식했다.

해당 학년에서 달러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아동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4학년과 5학년의 경우 각각 34.8%와 16.0%로 나타났고, 6학년의 경우는 어떤 아동들도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달러 가격의 변동에 대한 아동들의 비현실적인 인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4〉 달러 가격의 변동 여부에 대한 학년별 인식 차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결과

달러 가격의 변동 여부에 대한 인식 유형	변하지 않음	변함	$\chi^2$
학년<명>			
4학년<46명>	16명(34.8%)	30명(65.2%)	21.112**
5학년<50명>	8명(16.0%)	42명(84.0%)	
6학년<50명>	0명(0%)	50명(100%)	df=2
전체<146명>	24명(16.4%)	122명(83.6%)	

( )는 각 행의 전체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P < .01$

또한 달러의 가격이 변한다고 인식한 122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환율 변동의 주기, 즉 얼마나 자주 달러 가격이 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접 결과, 매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현실과 부합되게 하루에도 달러의 가격이 매우 자주 변할 수 있다고 인식한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10개월, 심지어는 2년에 한 번씩 달러 가격이 변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반응을 변동 주기의 길이에 따라 <표 5>와 같이 유형화했을 때, '수시', 즉 일정기간 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러의 가격이 그때그때 변한다고 인식한 아동들이 3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 달 이상~두 달 미만(25.4%)', '6개월 이상(17.2%)', '하루이상~한 달 미만(13.1%)', '두 달 이상~6개월 미만(10.7%)'의 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달러 가격의 변동 주기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유형을 학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달러의 가격이 '수시'로 변한다는 인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로 변한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4학년의 경우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 5, 6학년에서는 각각 15명(35.7%)과 26명(52.0%)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응답을 한 아동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들의 응답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달러 가격의 변동 주기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의 경제세계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5> 달러 가격의 변동 주기에 대한 학년별 인식의 차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결과

달러 가격의 변동 주기에 대한 인식 유형 학년<명>	수시	하루 이상~ 한 달 미만	한 달 이상~ 두 달 미만	두 달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chi^2$
4학년<30명>	0명 (0%)	6명 (20.0%)	9명 (30.0%)	5명 (16.7%)	10명 (33.3%)	26.912**
5학년<42명>	15명 (35.7%)	6명 (14.3%)	9명 (21.4%)	5명 (11.9%)	7명 (16.7%)	
6학년<50명>	26명 (52.0%)	4명 (8.0%)	13명 (26.0%)	3명 (6.0%)	4명 (8.0%)	df=8
전체<122명>	41명 (33.6%)	16명 (13.1%)	31명 (25.4%)	13명 (10.7%)	21명 (17.2%)	

( )는 각 행의 전체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P < .01$

### 3. 달러 가격의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환율 결정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달러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4명의 4학년 아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146명)에게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을 제시하였다. 이 물음과 관련하여, 무려 118명(80.8%)의 아동들이 ‘권한 부여적 사고(authority-giving thinking)’, 즉, 어떤 기관이나 개인(대통령이나 장관)에게 환율 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달러의 가격이 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고 경향을 띠고 있는 아동들의 반응은 환율 결정 권한의 귀속 주체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은행 중심적 사고’, ‘국가 중심적 사고’, ‘해외 지향적 사고’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사고 유형의 의미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면접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3: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유형】

##### 유형 ①: 은행 중심적 사고 - 은행에 의해 달러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인식하는 유형

- I: 아까, 1달러의 가격이 1500원이라고 했지?  
 4G: 네.  
 I: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4G: 은행에서요. 은행에서 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I: 왜 그렇게 생각해?  
 4G: 은행에서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꾸어주는 곳이니깐 당연히 은행에서 정하겠지요.

##### 유형 ②: 국가 중심적 사고 - 대통령, 장관, 정부 기관 등과 같이 국가 기관에 의해 달러 가격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유형

- I: 달러가 1200원이라고 했는데 1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5G: 잘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I: 대통령이 혼자서 정하는 거야?  
 5G: 그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I: 여러 사람? 그게 누구인데?  
 5G: 뭐, 장관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I: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5G: 달러의 가격을 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과 같은 높은 사람들이 정하겠지요.

##### 유형 ③: 해외 지향적 사고 - 미국의 정부나 은행, 국제기구 등과 같이 해외에 존재하는 기관에 의해 달러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유형

- I: 1달러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6G: 18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I: 그러면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6G: 미국 은행이 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I: 미국 은행이 정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이니?

6G: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달러 가격을 정하겠지요.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 같은 유형의 반응을 나타냈지만, 28명(19.2%)의 5,6학년 아동들은 아래 면접 사례와 같이 '기관 독립적 사고', 즉 어떤 기관(개인)에 의해 달러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달러 가격의 결정에 대한 네 번째 인식 유형으로 '기관 독립적 사고'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사례 #4: 달러 가격 결정에 대한 기관 독립적 사고의 예】

I: 1달러의 가격이 12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다고 생각하니?

6G: 글썄요.

I: 혹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서 달러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닐까?

6G: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달러의 가격을 어떻게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정해요?

I: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6G: 달러 가격은 자주 변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달러 가격을 매번 바꾸라고 시켰기 때문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달러의 가격을 정한다면 그렇게 자주 달러의 가격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한 인식 유형에 기초하여 분류한 아동들의 반응을 학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 독립적 사고를 보인 아동이 4학년의 경우 한 명도 없는 반면, 5학년과 6학년에서는 각각 11명(23.9%)과 17명(34.0%)으로 조사되었다. 통계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인식이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현실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기관 독립적 사고'가 점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6〉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학년별 인식 차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결과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인식 유형 학년<명>	권한 부여적 사고			기관 독립적 사고	$\chi^2$
	은행 중심적 사고	국가 중심적 사고	해외 지향적 사고		
4학년<46명>	10명 (21.7%)	28명 (60.9%)	8명 (17.4%)	0명 (0%)	19.798**
5학년<50명>	10명 (17.4%)	20명 (39.1%)	9명 (19.6%)	11명 (23.9%)	
6학년<50명>	9명 (18.0%)	16명 (32.0%)	8명 (26.0%)	17명 (34.0%)	df=6
전체(146명)	29명 (19.9%)	64명 (43.8%)	25명 (17.1%)	28명 (19.2%)	

( )는 각 행의 전체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P < .01$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직관적 상념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가 어떤 경우에 달러 가격을 올리고 내린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물음은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질문이 제시된 146명의 면접 대상자 중에서 달러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상념을 가진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 대상자 즉, 달러의 가격이 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122명의 아동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들 아동들에게만 추가 질문을 제시한 이유는, 달러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아동들에게 달러 가격이 어떤 경우에 변동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추가 질문을 받은 학년별 아동들의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인식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 추가 질문 대상 아동들의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인식 현황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인식 유형 학년<명>	권한 부여적 사고			기관 독립적 사고
	은행 중심적 사고	국가 중심적 사고	해외 지향적 사고	
4학년<30명>	10명 (33.3%)	16명 (53.3%)	4명 (13.3%)	0명 (0%)
5학년<42명>	8명 (19.0%)	16명 (38.1%)	7명 (16.7%)	11명 (26.2%)

〈표 7〉의 계속

6학년<50명>	9명 (18.0%)	16명 (32.0%)	8명 (16.0%)	17명 (34.0%)
전체(122명)	27명 (22.1%)	48명 (39.3%)	19명 (15.6%)	28명 (23.0%)

( )는 각 행의 전체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먼저, 은행 중심적 사고 즉 달러의 가격이 은행에 의해 변한다고 인식한 아동 27명 가운데 15명의 아동들-4학년 8명; 5학년 5명; 6학년 2명-은 은행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은행이 달러의 가격을 올리는 반면, 사정이 좋을 때에는 달러 가격을 낮춘다는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또한 27명의 아동들 가운데 10명의 아동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이 달러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이들 중 5명-6학년 5명-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달러 가격을 낮추어야 하고, 경제 사정이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달러 가격을 올린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반면 나머지 5명-4학년 2명; 5학년 3명-은 경제 사정이 좋을 때에는 달러를 많이 사용하므로 달러의 가격을 낮추고, 경제 사정이 나쁠 때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달러 가격을 올린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은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공공기관으로 은행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특히 5학년과 6학년 아동들이 이전 학년에서 은행에 대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2명의 아동들-6학년 2명-은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달러 가격을 올리고, 그 반대의 경우 달러의 가격을 내린다는 가격 결정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달러의 가격이 은행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아동들이 제시하고 있는 환율 결정 메커니즘의 유형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전형적 면접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5: 은행 중심적 사고 경향을 보인 아동들이 제시한 환율 결정 메커니즘의 유형】**

유형 ①: 은행 사정을 고려한 환율 결정

- I: 어떤 경우에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니?  
 4G: 은행이 가격을 올리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지요.  
 I: 어떤 경우에 은행은 달러의 가격을 올리는데?  
 4G: 은행이 돈이 부족할 때요.  
 I: 왜 돈이 부족하면 달러의 가격을 올리는데?  
 4G: 달러의 가격을 높이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I: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달러의 가격을 내릴까?

4G: 은행 사정이 좋을 때요. 그럴 때는 달러 가격을 좀 내려요.

유형 ②: 경제 상황에 따른 환율 조정

<불황기에 환율을 올린다고 인식하는 유형>

I: 은행에서는 어떤 경우에 달러의 가격을 올리니?

5G: 응, 경제가 좋지 않을 때요. 그럴 때는 달러의 가격을 올려요.

I: 왜, 그렇게 생각해?

5G: 경제 사정이 나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달러를 덜 쓰잖아요.

I: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달러 가격을 내릴까?

5G: 경제 사정이 좋을 때요.

I: 경제 사정이 좋을 때는 달러 가격을 왜 내리는데?

5G: 경제 사정이 좋으면 달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을 좀 낮춰 주어야겠지요.

<불황기에 환율을 내린다고 인식하는 유형>

I: 어떤 경우에 은행은 달러 가격을 올리니?

6G: 경제가 좋을 때요.

I: 왜, 경제가 좋을 때 은행에서 달러 가격을 올릴까?

6G: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달러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I: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달러 가격을 내리니?

6G: 그거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겠지요. 그럴 때는 달러 가격을 좀 내려줘요.

I: 왜?

6G: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유형 ③: 물가를 고려한 환율 조정

I: 은행에서는 어떤 경우에 달러 가격을 올리니?

6G: 물가가 올라갈 때요.

I: 왜 물가가 올라가면 달러의 가격을 올릴까?

6G: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의 가격을 좀 올려야 하겠지요.

I: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달러 가격을 내리니?

6G: 물가가 내려 갈 때요. 그럴 때는 달러 가격을 좀 내려요.

추가 면접 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39.3%)을 차지한 국가 중심적 사고를 나타낸 48명의 아동, 즉 대통령이나 행정 기관 등과 같이 국가 기관에 의해 달러 가격이 결정된다고 인식한 아동들 가운데 39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달러 가격을 조정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들 아동들 역시 은행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의 아동들은 불황기에 가격을 내린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일부의 아동들은 오히려 불황기에 달러의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39명 아동들 가운데 23명의 아동들-4학년 10명; 5학년 7명; 6학년 6명-은 경제 사정



이 좋을 때에는 달러 가격을 올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달러의 가격을 내린다는 가격 결정의 논리를 제시했다. 이 논리는 환율 결정 주체만 다를 뿐 은행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들이 제시한 달러 가격 결정의 논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16명의 아동들-4학년 2명; 5학년 7명; 6학년 7명-은 경제 사정을 나쁠 때에는 달러의 가격을 올리고, 경제 사정이 좋을 때에는 달러의 가격을 내린다고 인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반응 즉, 불황기에 달러의 가격을 올리고 호황기에 달러 가격을 내린다는 반응이 은행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들 아동들이 제시하는 설명의 논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앞의 면접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들은 호황 시에는 달러 많이 쓰기 때문에 달러 가격을 낮추고, 불황 시에는 달러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가격을 높인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은 아래의 면접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달러의 판매 대금을 국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불황기에는 부족한 국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달러의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사례 #6: 국가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이 제시한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

I: 정부에서는 어떤 경우에 달러의 가격을 올릴까?

5G: 경제가 안 좋을 때요. 그럴 때에는 달러의 가격을 올려요.

I: 경제가 안 좋을 때, 왜 정부에서는 달러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해?

5G: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도 돈이 모자라니까 달러의 가격을 조금 올려야겠지요.

I: 경제가 좋으면?

5G: 그때는 돈이 좀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을 좀 낮추겠지요.

한편, 국가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48명 아동들 가운데 6명의 아동들-4학년 2명; 5학년 2명; 6학년 2명-은 은행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가에 따른 돈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달러의 가격을 올리고, 그 반대의 경우 달러의 가격을 내린다는 가격 결정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동들-4학년 2명, 6학년 1명-은 이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아동들은 나라에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달러 가격을 낮추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달러의 가격을 높인다는 가격 결정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해외 중심적 사고, 즉 미국의 정부나 은행 또는 UN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같이 해외에 존재하는 기관에 의해 달러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인식한 19명의 아동들이 제시한 환

율 결정의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는 자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미국의 은행이나 정부가 달러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미국의 경제 사정이 나쁠 때에는 미국 정부나 미국의 은행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달러 가격을 높이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달러 가격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결정의 논리는 13명의 아동들-4학년 2명; 5학년 3명 6학년 8명-로부터 제시되었다.

한편,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를 UN이나 IMF로 인식하고 있는 6명의 아동들-4학년 2명; 5학년 4명-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달러 가격이 결정된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아동들은 설명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나쁠 때에는 UN이나 IMF 등이 달러 가격을 낮추어 주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달러 가격을 올린다는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달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 28명 아동들 가운데 5명의 아동들-4학년 3명; 5학년 2명-은 특정한 기관에 의해 달러 가격이 결정된다고 인식한 일부의 아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가에 따라 달러의 가격이 변동한다는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은 물가가 상승하면 달러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내린다는 반응을 되풀이 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반면, 나머지 23명의 아동들은 현실에 근접한 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들 아동들은 아래 사례와 같이 명시적으로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달러의 가격은 달러의 수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결정된다고 응답했다.

**【사례 #7: 기관 독립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이 제시한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

I: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달러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달러 가격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6G: 당연히 변하지요.

I: 얼마나 자주 변한다고 생각하니?

6G: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는 것 같은데요.

6G: 그렇다면 달러 가격은 어떤 경우에 오를까?

6G: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격은 오르겠지요.

I: 왜 그렇게 생각해?

6G: 그야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I: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달러 가격이 내려갈까?

6G: 그야 당연히 달러를 구하기 쉬워지면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겠지요.

I: 어떤 경우에 달러를 구하기 쉬워지는데?

6G: 그야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면 달러가 흔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의 가격은 내려가겠지요.

이러한 '시장 중심적 사고'의 출현은 그동안 아동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환율' 개념이 경제 개념발달 연구에서 아예 다루어지지 않아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래 <표 8>에 제시된 시장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들의 학년별 분포 현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환율' 개념에 대한 인식이 고학년 시기에 정교화(elaboration)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8> 시장 중심적 사고 경향을 나타낸 아동들의 학년별 분포 현황

학년<명>	시장 중심적 사고를 나타낸 아동의 수	학년별 면접 대상자에서 시장 중심적 사고를 나타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4학년<50명>	0명	0%
5학년<50명>	8명	16%
6학년<50명>	15명	30%

#### 4. 소결

그간의 경제개념 발달 연구들은 한결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동들이 원숙한 사고를 하게 되고 경제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점점 현실과 부합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해 왔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 역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환율 개념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이 현실의 경제세계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서 종래의 연구 결과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반적인 발달 경향은 누구나 알고 짐작할 수 있는 발달론적 경구(developmental epigram)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일반적인 발달 추세라기보다는 면접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 아동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유형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달러 가격의 결정 주체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인식과 이들이 제시한 달러 가격의 결정 논리는 환율 개념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갖기 쉬운 그릇된 상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경제교육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경제교육 교사 및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주는 교육적 함의를 주요 조사 결과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들에 의해 달러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직관적 상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한 부여적 사고는 상당부분 가격 결정의 기본 원리 즉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동들의 무지(無智)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격 결정의 기본 원리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경제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원리를 보다 분명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주는 또 다른 교육적 함의는 아동들이 비록 유치하고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나름의 그럴싸한(coherent)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아동들의 직관적 상념이 경제세계에 대한 사실과 정보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형성한 소박한 인과적인 설명의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틀에 의해 경제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인과적인 설명의 틀이 경제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된다고 한다면, 교사들은 아동들의 인지적 변화를 위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교과서에 제시된 경제적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들이 어떤 인과적인 신념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그러한 틀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시사점은 아동들에게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잠정적인 판단에서 그동안 경제개념 발달 연구 분야에서 아예 다루어지지 않았던 ‘환율’ 개념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고학년 아동들이 현실과 부합되는 인식, 즉 시장 중심적 사고를 나타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정적인 반증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약된 경제적 사고만 할 수 있다는 종래의 아동관(兒童觀)에 의문을 던져주는 동시에, 거시 경제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고학년 시기에 경제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환율’ 개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또한 시사한다고 하겠다.

#### IV. 마치면서

면접은 아동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아동들을 면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하고, 제시된 질문에 아동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 그리고 면접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일은 정말로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러한 고충을 거론하는 이유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본 연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은행이나 정부 등과 같은 기관들이 경제 사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달러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직관적인 상념을 많은 아동들이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단편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아동들의 상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본 연구가 면접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동들이 나타내는 특수한 상념을 밝혀 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 아동들을 면접 대상으로 삼아 왔던 종래의 경제개념 발달 연구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들의 경제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꾸준히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들의 발달 수준에 걸맞은 경제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경제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경제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보다 많은 경제교육 연구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탐구하는데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향후 경제개념 발달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경제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미시적인 경제개념뿐만 아니라 거시적 경제개념들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경모(1993). 한국 학생의 소득분배개념 이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준혁(2004). 경제인지발달에 대한 피아제의 관점과 영역-특수적 관점의 적합성: ‘이윤’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Armento, B. J., & Flores, S. (1991). “Learning about the economic world”. In V. A. Atwood (Eds.), *Elementary Social Studies: Research as a Guide to Practice*(2nd printing). Washington D. 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Bergström, S. (1989). *Economic phenomenology: Naïve economics in the adult population in Sweden*. Paper presented at the XIV IAREP Colloquium.
- Berti, A., & Bombi A. (1979). Where does money come from?. *Archivio di Psicologia*, Vol. 40. 53-77.
- Berti, A., & Bombi A. (1981).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money and its valu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 52, 1179-1182.
- Berti, A., & Bombi A. (1988). *The children’s construction of economics*(G. Duveen,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ti, A., Bombi, A., & Lis, A. (1982). The child’s conceptions about means of production and their own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2. 221-239.
- Cram, F., & Ng, S. (1989). Children’s endorsement of ownership attribut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10. 63-75.
- Furnham, A. (1994). Young people’s understanding of politics and Economics. In M. Carretero & J. F. Voss.(Eds), *Cognitive and Instructional Processes i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urth (1980). *The world of grow-ups*. New York: Elsevier.
- Jahoda, G. (1979).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reality by some Glaswegia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9. 115-127.
- Jahoda, G. (1984). The development of thinking about socio-economic system. In H. Tajfel(Ed.), *The Social Dimension*, Vol.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hoda, G., & Woerdenbagch (1982). The development of ideas about an economic institution: A cross-national repli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1. 337-338.
- Leahy, R. (1981).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Descriptions and comparisons rich and poor people. *Child Development*, Vol. 52. 523-532.

- Rubin, P. H. (2003, July). Folk economic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0(1). 157-171.
- Winocur, S., & Siegal, M. (1982). Adolescent's judgement of economic arran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Vol. 5. 357-365.
- Schug, M. C. & Walstad, W. B. (1991). Teaching and Learning Economics. In J. P. Shaver(Ed),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Strauss, A. (1952).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monetary meaning in the chil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3. 275-286.

• 논문 접수 : 2010년 8월 24일 / 수정본 접수 : 2010년 10월 5일 / 게재 승인 : 2010년 10월 25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Economic Understanding: The Case of 'Exchange Rate' Concept

Yi Jun-Hyuk

(Instru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lthough many studies of children's understanding different aspects of the economic world have been carried out, they have focused on some microeconomic ideas. Furthermore, most research has concentrated its efforts on delineating developmental stages of economic understanding or economic reasoning. Bu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have given little useful information to teachers and curriculum leaders.

Unlik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tried to treat not microeconomic ideas but "exchange rate" concept among macroeconomic ideas for school learners to need to understand the economic world and to place focus on exploring intuitive notions children had about "exchange rate" concept to offer economic educators about pupils' misunderstanding about economic world.

For these purposes, 150 children from grades 4~6 in B elementary school, seoul, were interviewed. Putting the findings of interview together, the followings were found: Most of interviewees had various intuitive notion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real economic world. In particular, many children had the intuitive notions that some agents such as banks,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termine the price of dollar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situations, prices and so on. But these erroneous notions decreased in the upper grades. Moreover, not a few interviewees in the upper grades had the notions to be consistent with the real economic world. They perceived the price of dollar dependent on the demand and supply.

These findings can be seen as nothing but fragmentary informat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conomic understanding. But these informations need to be collected steadily to understand children's economic socialization more perfectly.

Key words : economic education, economic concepts, development of economic concepts, economic world, intuitive notions, exchange rate